현대불교

제 791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7월 7일 수요일 (음력 5월 26일 · 불기 2554년 · 주간)

실승 '시국선언' 추진

본사 · 선원 서명운동… 종단 반개혁에도 대처

1980년대부터 승가의 사회 참여 활동을 주도해 온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수경 스님의 뒤를 이어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선다. 또 종단 부조리와 반개혁적 흐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퇴휴, 이하 실천승가회)는 6월 30일 조계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생명 평화의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8일 대규모 승려 시국선언 △전국 본사 · 선원 등에서 4대강 반대 서명운동 전개 △17일 문수스님 소신공양 범국민추모제 적극 참여 △4대강 개발 중단을 위한 범불교연대기구 확대 등을 실행계획으로 제시했다.

실천승가회가 사회 및 종단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입장 표명으로 수경 스님의 승적반납 이후 구심점을 잃었던 불교환경운동이 새 전기를 맞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전 교육원장 청화 스님(실천승가회 상임고문)은 회견문 낭독에 앞서 "수경 스님이 걸어온 4대강 반대 운동에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을 깊이 참회하며, 4대강 반대 운동의 구심에 실천승가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법안 스님(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은 "수경 스님은 큰 족적을 남기며 불교환경운동의 거울 역할을 해온 분이다. 그동안 홀로 힘겨웠을 스님의 무거웠던 짐을 이제는 나눠지겠다"고 밝혔다.

실천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과 수경 스님의 고뇌와 결단은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며 생명평화에 대한 끝없는 성찰의 결과이며, 남아있는 우리의 실천하는 용기와 의지를 당부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라며 "국민의 뜻을 저버린 MB정부의 4대강 개발 사업 강행은 권력의 오만과 무지이며 생명과 자연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수행자의 양심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퇴휴 스님은 "실천승가회는 7월 18일 문수 스님 추모기간을 전후해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겠다"며 밝혔다.

승려 시국선언은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의 시국선언과 함께 진행되며, 무분별한 4대강 사업 강행을 중단하고 시범 실시 · 검토 후 점진적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실천승가회는 시국선언에 3천여 명의 스님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실천승가회는 지나치게 친정부적인 행보로 비판 받고 있는 종단 지도부에 대해서도 "사회적 허물을 바라보는 시각만큼 종단 내부의 부조리와 반개혁적 흐름에 분명히 대처하겠다. 설령 제살을 뜯어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항상 경책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개혁의 의지를 다잡아 가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불교환경연대는 '문수 스님 소신공양 불교도 1만인 선언' 서명운동을 2일 시작했다. 불교환경연대는 "불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선언 행사를 통해 문수 스님이 단행한 소신공양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역경에 스승 · 제자 따로 없어 남양주 봉선사가 월운 스님의 주도로 〈인본욕생경〉 시역고(試譯稿) 강평회(講評會)를 6월 28일 개최했다. 시역고 강평회는 한 사람이 번역한 원고를 여러 사람이 나눠보고 각자의 견해를 토론해 최종적으로 원고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월운 스님은 시역한 원고를 미리 후학들에게 나눠주고 한달 동안 맡은 부분을 연구하게 했다. 사진은 시역고 강평회에서 제자들의 번역에 대한 비판을 들으며 메모하는 월운 스님의 모습. 관련기사 14~15면 · 사진=임연태 논설위원

"사찰문화는 관광 아닌 콘텐츠"

도권 스님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에 일침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은 관광사업이 아닌 문화콘텐츠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돼야 합니다."

경북 군위군이 조성중인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접근만이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온은 '가운데', 누리는 '세계'라는 뜻으로 가온누리는 가운데 세상 즉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다. 가온누리 사업은 삼국유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다. 이를 통해 군위군은 인각사 일대를 국내 대표적인 신화 · 역사관광지로 육성 ·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군위 인각사 주지 도권 스님은 6월 28일 서울 인사동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은 지역사찰과 〈삼국유사〉 관련 문화콘텐츠 활성화 등을 논의하지 않고 개발논리에 전도돼 관광자원적 측면에서만 접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위 인각사는 〈삼국유사〉가 쓰인 곳으로 〈삼국유사〉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1991~2009년 진행된 발굴조사 등으로 인각사는 기존 당우마저 해체된 채 방치돼 왔다.

스님은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인각사 복원 없이 조성되는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지 의문이다. 군위군은 테마파크 조성에 앞서 인각사 복원과 〈삼국유사〉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권 스님은 "군위군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국고 등 3650억원을 인각사 등 삼국유사와 인접하지도 않은 140만㎡(약 40만평) 부지에 쏟아 붓겠다고 한다.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활성화 없이 관광시설 확충에만 몰입한 가온누리 사업은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도권 스님은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의 정책적 기반은 대선공약인 '경북도 3대 문화권 개발 사업 중 불교문화권 사업'이다. 불교문화권 사업임에도 인각사 등 지역사찰과의 소통 없이 진행되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조동섭 기자

"MB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불교인권위 성명서 발표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가 "4대강 반대, 평화통일 운동, 천안함 진실 규명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인권위는 6월 29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반대 의사 무시, 남북긴장감 고조와 통일의 주도권을 미국에게 내어 주는 일, 참여연대 탄압, 경찰 고문사건 등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다수의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는 경제, 전쟁위기 조장, 자본독점과 수도권 중심의 정책, 4대강 사업 중단과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위원 영탄, 명진 스님, 종교평화연대 사무총장 자흥 스님, 진철문 박사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문수스님 분향소에서 공동 분향을 진행했다. 이상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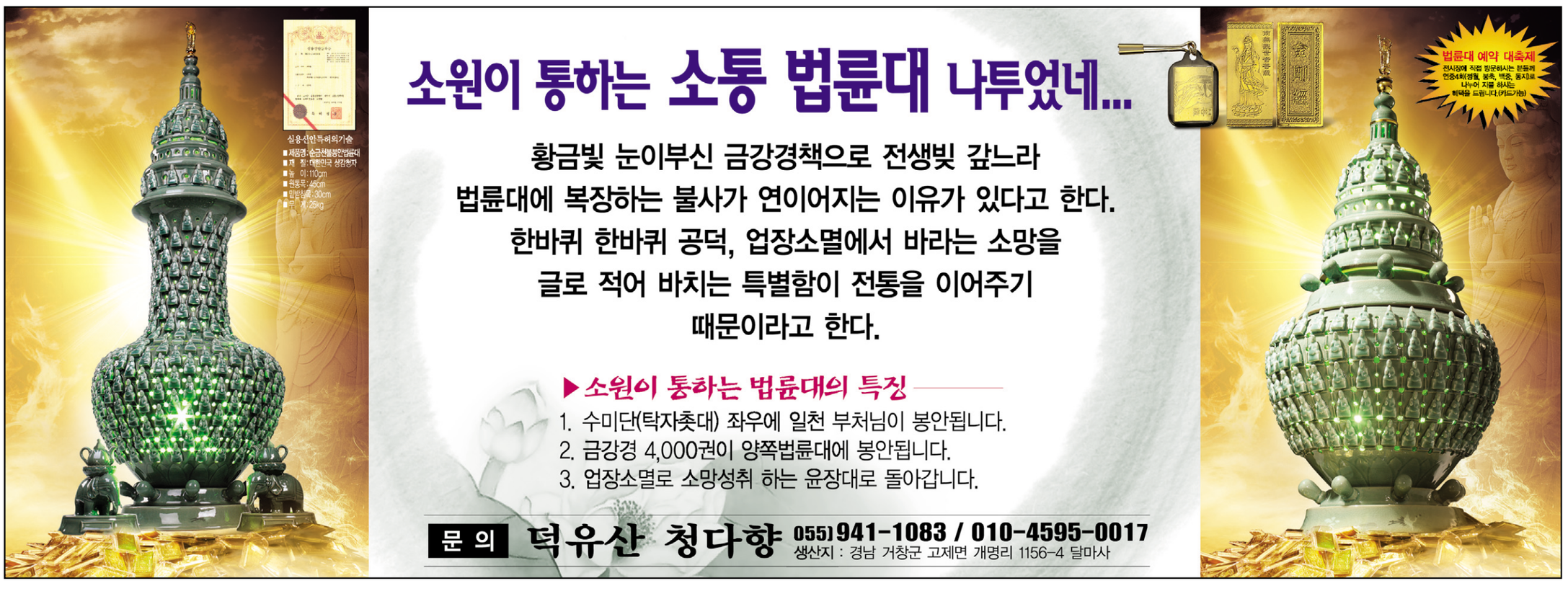
낙동강선원 개원

"4대강 운동 본격화"

4대강 생명살림을 위한 낙동강 선원이 문을 연다.

경남불교평화연대 대표 자흥 스님(창원 금강사 주지)은 6월 29일 "4대강 사업 낙동강 공사 현장이 보이는 곳에 낙동강 선원을 열고 4대강 생명살림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한강선원, 여주 여강선원, 공주 금강선원에 이어 문을 여는 낙동강 선원은 경남 창원시 동읍 본포리 228번지 본포취수장에 자리잡았다. 경남불교평화연대, 4대강생명살림 불교연대, 4대강 사업저지 낙동강 국민연대 등은 낙동강 선원을 통해 4대강 사업 저지의 뜻을 굳건히 하고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7월 20일 개원하는 낙동강 선원 개원식에는 부산 태종사 도성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박창균 신부, 박영식 목사, 김세은 교무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언 기자

▶5 인터뷰-석상마을 착공한 법만 스님 ▶9 현장-채식 요리강좌 ▶11 특집-이주민 토론회